

## 28. 감정 표현하기

28강에서는...

- 1) 태국어의 다양한 전치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 2) 태국어의 다양한 감탄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태국의 문화> 태국인의 감정 표현

### 1. 전치사

#### 1.1 장소/위치 전치사

ที่	เ็- <sup>^</sup>	~에, 에서
ใน	นำ- <sup>i</sup>	~안에
นอก	นุ- <sup>^</sup> ฏ	~밖에, ~외에
บน	บน <sup>~</sup>	~위에
ใต้	ต่า- <sup>i</sup>	~아래
หน้า	นำ- <sup>^</sup>	~앞에
หลัง	หลัง <sup>~</sup>	~뒤에

คุณอยู่ที่บริษัทใช่ไหมคะ

(kun yu- e- ti- ba-ri-sat chae mai ka)

: 당신 회사에 있는 것 맞지요?

## [EBS 초급 태국어]

ใช้ครับ ตอนนี้ผมอยู่ในห้องประชุมครับ

(차이 크랍, 떠-ㄴ 나- 품 유- 나이 허-ㅇ 뿌라춤 크랍)

: 맞아요, 지금 저는 회의실 안에 있어요.

ใต้โต๊ะของดิฉันมีเอกสารสำคัญ

(따이 도 커-ㅇ 디찬 미- 예-ㄱ 까싸-ㄴ 씸칸)

: 제 책상 밑에 중요한 서류가 있어요.

คุณช่วยเก็บให้เราได้ไหมคะ ตอนนี้ดิฉันอยู่นอกบริษัทค่ะ

(쿤 추-아이 겹 하이 라오 다이 마이 카, 떠-ㄴ 나- 디찬 유- 너-ㄱ 버-리삿 카)

: 당신이 챙겨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회사 밖에 있어요.

ได้สิครับ ไม่ต้องเป็นห่วงครับ

(다이 씨 크랍, 마이 떠-ㅇ 뽀 후-앙 크랍)

: 당연하죠. 걱정마세요.

## 1.2 시간 전치사

ภายใน	파-이 나이	~안에, 이내에
ระหว่าง	라와-ㅇ	~ 사이에, ~ 중간에
ใน	나이	~ 중에, ~에
ก่อน	꺼-ㄴ	~전에
หลัง	랑	~후에

[EBS 초급 태국어]

เฮ้ย ตอนนี้ก็โหมงแล้ว

(흐-이, 떠-니- 께- 모- 래-우)

: 앗, 지금 몇 시야?

5 โหมงเย็นแล้ว มีอะไรหรือเปล่า

(하- 모- 옌 래-우, 미- 아라이 르- 뽀라오)

: 오후 5시가 되었는데, 무슨 일 있어?

ผมต้องส่งใบสมัครงานภายในวันนี้

(폼 떠- 옹 바이 싸막 응아- 파-이 나이 완니-)

: 나는 오늘 안에 지원서를 제출해야 돼.

บริษัทให้ส่งเอกสารระหว่างวันที่ 1 ถึง 15 เดือนนี้

(버-리삿 하이 옹 예-가싸- 라와- 완티- 능 툽 씩하- 드-안 니-)

: 회사에서 이번 달 1일부터 15일 사이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어.

จึงต้องส่งก่อนเวลา 6 โหมงเย็นวันนี้

(죵 떠- 옹 께- 웨-라- 혹 모- 옌 완니-)

: 그래서 오늘 6시 전까지는 제출해야만 해.

ฉันเธอรีบไปส่งเถอะ เดี่ยวจะไม่ทัน

(응안 트- 리- 바이 옹 트-, 디-아우 짜 마이 탄)

: 그럼 서둘러서 가서 제출해. 이러다가 시간에 못 맞추겠다.

## [EBS 초급 태국어]

### 1.3 수단/도구 전치사

ด้วย	두-아이	~으로, 을 사용하여
โดย	도-이	~에 의해, ~으로
ทาง	타-ㅇ	~에 의해, ~을 통해
ตาม	따-ㅇ	~을 따라, ~대로

ผมจะเดินทางไปประเทศไทยโดยเครื่องบิน

(폼 짜 드 ㅈ-ㄴ 타-ㅇ 빠이 빠라테-ㅅ 타이 도-이 크르-앙 빈)

: 저는 비행기로 태국에 갈 건데요.

จะใช้เวลาประมาณกี่ชั่วโมง

(짜 차이 웨-ㄹ라- 빠라마-ㄴ 껀- 추-아 모-ㅇ 카)

: 대략 몇 시간이 걸리나요?

ก็ประมาณ 5 ชั่วโมงครึ่ง

(꺼- 빠라마-ㄴ 하- 추-아 모-ㅇ 크릉)

: 대략 5시간 반정도요.

ฉันคงถึงเวลา 2 ทุ่มตามเวลาที่ท้องถิ่น

(응안 폼 쿡 텡 웨-ㄹ라- 씨-ㅇ 톸 따-ㅇ 웨-ㄹ라- 터-ㅇ 틴)

: 그러면 저는 아마 현지 시간으로 저녁 8시에 도착하겠네요.

ผมเห็นโฆษณาทางทีวี

(폼 헨 코-ㅅ싸나- 타-ㅇ 티-위-)

: 제가 TV를 통해 광고를 보았는데요.

## [EBS 초급 태국어]

คนเกาหลีทานข้าวด้วยช้อนและตะเกียบหรือครับ

(곤 까올리- 타-ㄴ 카-우 두-아이 처-ㄴ 래 따까-압 르- 크랍)

: 한국 사람들은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나요?

ถูกต้องค่ะ แต่คนไทยทานข้าวด้วยช้อนและส้อม

(투-ㄴ 떠-ㅇ 카, 때- 곤 타이 타-ㄴ 카-우 두-아이 처-ㄴ 래 씨-ㅇ)

: 맞아요. 그런데 태국인은 숟가락과 포크로 식사를 해요.

### 1.4 목적/대상 전치사

สำหรับ	ซัม랍	~용의, 을 위한 ~에 대해서, 에 관해서
ต่อ	เต-	~ 대해서, 향해서
เกี่ยวกับ	끼-아우 꺄	~과 관련하여, 에 관한

สำหรับวันนี้ขอขอบคุณมากครับ

(ซัม랍 완นี- 켜- 커-น곤 มา-ㄴ 크랍)

: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ที่ให้ข้อมูลเกี่ยวกับอาเซียน

(อี- 하이 커-무-ㄴ 끼-아우 꺄 아-씨-안)

: 아세안에 대한 정보를 주셔서요.

จะเป็นประโยชน์ต่อผมในอนาคต

(짜 เป็น เป็ราย-น เต- พม นาิ อา-นาค)

: 앞으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 [EBS 초급 태국어]

ดิฉันเองก็ขอบคุณเช่นกันค่ะ

(디찬 ऐ-ㅇ 꺄- 커-ㅂ 쿤 첸 칸 카)

: 저도 마찬가지로 감사드려요.

ที่มาเยี่ยมเราในวันนี้

(티- 마- 이-암 라오 나이 완니-)

: 오늘 저희를 방문해 주셔서요.

## 2. 감탄사

### 2.1 상대방을 부르거나 알릴 때 혹은 놀랐을 때

เฮ้ย	흐ㅣ-이	앗, 아닛
เอ๊ะ	ऐ	앗, ऐ엣, 어엇
อู๋	우ㅣ	어머, 아이구
ว้าย	와ㅣ-이	으악, 깝

เฮ้ย เกิดอะไรขึ้น

(흐ㅣ-이, 꺄ㅣ-ㅅ 아라이 큰)

: 앗, 무슨 일이야?

เอ๊ะ เป็นยังไงจริงๆหรือ

(ऐ, 뽀 양 응안 핑 러-)

: 응? 진짜 그런 거야?

## [EBS 초급 태국어]

อู๋ย ขอโทษค่ะ

(우이, 커-토-스 카)

: 어머, 죄송합니다.

ว้าย ตกใจหมดเลย

(와이, 똑 짜이 뭇 르-이)

: 으악, 완전 깜짝 놀랐네!

## 2.2 동의하지 않을 때, 화가 났을 때

แหม	매-	어머, 정말
จี	치	첻
โธ่เอ๊ย	토- 으-이	에잇, 아잇

แหม ใครจะเชื่อ

(매-, 크라이 짜 츠-아)

: 정말, 누가 믿겠니

จี ถามก็ไม่ตอบ

(치, 타- 께- 마이 떠-ㅂ)

: 첻, 물어도 대답도 안하고.

## [EBS 초급 태국어]

โธ่เอ๊ย เป็นแบบนี้อีกแล้ว

(โธ- 으-이, 뻔 배-ㅁ 니- 이-ㄱ 래-우)

: 에잇, 또 이러네

### 2.3 아플 때, 속상할 때

โธ่เอ๊ย	오-이	아이고
โธ่	토-	저런, 아이고

โธ่เอ๊ย เจ็บ !

(오-이, 꾹)

: 아이구, 아파!

โธ่.. น่าสงสารจังเลย

(โธ- 나- 쏹싸-ㄴ 짱 르-이)

: 저런, 너무 안됐다..

### 3. 대화: 가정 표현하기

น้ำ: คุณอยู่ที่บริษัทใช่ไหมคะ

(나-ㅁ) (쿤 유- 티- 버-리삿 차이 마이 카)

: 당신 회사에 있는 것 맞지요?



ปอนด์: ใช่ครับ ตอนนี้ผมอยู่ในห้องประชุมครับ

(빠-ㄴ) (차이 크랍, 떠-ㄴ니- 품 유- 나이 허-ㅇ 뿌라춤 크랍)  
: 맞아요, 지금 저는 회의실 안에 있어요.

น้ำ: ได้โต๊ะของดิฉันมีเอกสารสำคัญ

(나-ㅁ) (따이 또 커-ㅇ 디찬 미- 예-ㄱ까싸-ㄴ 쌤칸)  
: 제 책상 밑에 중요한 서류가 있어요.

คุณช่วยเก็บให้เราได้ไหมคะ ตอนนี้ดิฉันอยู่นอกบริษัทค่ะ

(쿤 추-아이 꺾 하이 라오 дай май 카, 떠-ㄴ니- 디찬 유- 너-ㄱ 버-리삿 카)  
: 당신이 챙겨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회사 밖에 있어요.

ปอนด์: ได้สิครับ ไม่ต้องเป็นห่วงครับ

(빠-ㄴ) (다이 씨 크랍, 마이 떠-ㅇ 뽀 후-앙 크랍)  
: 당연하죠. 걱정마세요.

น้ำ: อันที่จริง ดิฉันต้องส่งเอกสารฉบับนั้นภายในวันนี้

(나-ㅁ) (안 티- 썽, 디찬 떠-ㅇ 송 예-ㄱ까싸-ㄴ 차밥 난 파-이 나이 완니-)  
: 사실 저는 오늘 안에 그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ปอนด์: โอ้ งั้นผมจะเอาไปให้ถึงที่เลยนะครับ

(빠-ㄴ) (토- 응안 품 짜 아오 빠이 하이 텡 티- 르-이 나 크랍)  
: 저런, 그러면 제가 그 장소까지 가져다 줄게요.

## [EBS 초급 태국어]

### 〈복습하기〉

다음의 한국어를 보고 적절한 태국어 문장을 이야기해 봅시다.

- 당신 회사에 있는 것 맞지요?
- 맞아요, 지금 저는 회의실 안에 있어요.
  
- 회사에서 이번 달 1일부터 15일 사이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어요.
- 오늘 6시 전까지는 제출해야만 해요.
  
- 저는 비행기로 태국에 갈 건데요.
- 그러면 저는 아마 현지 시간으로 저녁 8시에 도착하겠네요.
  
-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 앞으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태국인의 감정표현>



(출처: <https://pixabay.com/th/illustrations/ความสุข-บวก-อารมณ์-สูง-2411727/>)

태국에서 흔히 '끄렝짜이(เกรงใจ)'라는 말을 사용하곤 한다. 외국어로 딱 맞아 떨어지는 단어로 번역이 어려운 단어인데, 태-한 사전에서는 '거리끼다, 사양하다, 염치없다, 어려워하다'라는 다양한 대응어를 제시하고 있다. 상황적으로 부담스럽거나 어려워서 거리끼거나 사양할 때 사용한다. 이처럼 태국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는 상황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따라서 가까운 사람이 아닌 경우, 극한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게 비춰질 수 있다.

특히, 태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비록 아랫사람이더라도 그의 잘못을 여러 사람 앞에서 꾸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체면을 중요시하는 태국인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매우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잘못을 지적하고자 한다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타이르는 것이 적절하다.

슬픔을 나타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는 장례식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일상적이며,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장례식에서 눈물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태국에서는 고행의 삶을 마치고 편안한 상태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며 눈물을 자제한다.

한편, 화를 내는 경우에도 한국인과 태국인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국인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쉽게 화를 내지만 쉽게 화를 푼다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태국인의 경우 화가 나더라도 처음에는 이러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가슴 속에 쌓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가 화가 쌓이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과는 이야기 하지 않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경향이 있다.